

# 도시재생 뉴딜 지원체계 구축방안은?

###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발간...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공모사업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최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정책브리프(총권 26호)를 발간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의 마을을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고쳐 나가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자체와 커뮤니티가 주도하여 도시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도내 시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과 지원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주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진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지원조례는 시지역에만 제정되어 있고, 군

지역에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시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

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사업비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병록 박사는 도시재생이 효과적

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조직 기반, 사업지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개의 틀에 기초하여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찾아 농촌일손돕기

21일 군산시 성산면 칸치말 마을에서 (사)전북지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볼런투어에 참여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90명여이 농촌 일손돕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저소득층 학생 문화·체육복지 확대

### 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전북도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스포츠 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취약계층 유·청소년 3010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65명이 증가한 것이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의 유·청소년이 지정 가맹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8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해져 저소득층 문화·체육 복지 확대가 예상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 강좌이용권 결제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발급받게 된다.

이후 태권도와 검도·합기도·헬스·수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가능한 시설은 현재 523개소가 있다. /김진성 기자

# 정부24, 정책정보 한곳에서 쉽게 이용 가능

정부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의 정책정보가 국민편의 중심으로 달라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개별사이트에서 분산 제공되던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원문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의 정책정보 분야를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24'의 정책정보에서는 정부의 정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연

구포털 등 4대 대형 사이트를 연계해 뉴스, 정책보고서 등 57만여 건의 정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대 웹사이트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 온 나라 정책 연구(prism.go.kr), G-Zone(gzone.kr), 정책브리핑(korea.kr)이다.

'정부24'의 정책관련 다양한 정보는 뉴스, 연구보고서, 간행물로 구분돼 제공되며 최신 자료로 매일 갱신될 예정이다. /뉴스스

# 전북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참가자 모집

전북도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 참가할 여중생을 모집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 28일부터 8월8일까지 운영되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치유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와 차단 환경에서 진행된다.

이에 11박12일의 합숙형 캠프로 이뤄지며 참가 대상은 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5명이다.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및 대안활동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받게 된다.

또 캠프가 종료된 후에도 청소년동반자 상담, 자조모임, 생활태도 점검 등을 통해 3개월 동안 사후관리도 받는다.

치유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전주만들기 착수

### 시, 이달 중 피해예방·저감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다울마당 구성 의견 수렴·시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방 운영키로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력체인 다울마당 구성 △시민 소통방 개설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강력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전주시의회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 '전주시 미세먼지로부터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이하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전예 미세먼지 발생원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사항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조례에는 미세먼지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관련 홍보·교육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민관협력체 구성·운영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9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071개소(어린이집 470개소, 경로당 601개소)에 공기청정기 3,256대(어린이집 2,156대, 경로당 1,100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또 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65억원 을 투입해 총 1,308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사업 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우리 모두의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개인이 해결하거나 행정의 힘만으로 완벽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작년 119 구급대원 의사 의료지도 9만건

### 환자상태 판단 5만5269 · 병원선정 3만8522건

지난해 119구급대원 현장출동시 지도 의사로부터 총 9만여건의 의료지도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도도는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응급처치 등에 관해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지도 내용으로는 환자상태 판단이 5만5269건, 병원선정이 3만8522건이었다.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관련지도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2만1885건,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약물지도가 4만889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119상황실에서 421명의 의사가 365일 24시간 순번제로 근무하며 의료지도도를 실시하고

있다. 119구급출동 증가와 함께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한 의료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19구급대 이송인원은 2013년 154만8880명에서 지난해 181만7526명으로 17.3% 증가했다. 의료지도 역시 2013년 6만7527건에서 지난해 9만1719건으로 35.8% 늘어났다. 올해 5월까지 의료지도도는 4만517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3만5219건)과 비교해 28.3% 증가한 수치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현재는 각 시·도에서 임시·순번제 근무 의사들에 의한 의료지도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소방청에 근무하는 전담 의사 인력에 의한 의료지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